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대성공적발사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리만건동지, 박도훈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체조선의 승리와 번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주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성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령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새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이 격조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대한 장성국가건설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들을 편이여 알아오시어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영령의 환호를 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권리와 무진막강한 국력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광명성》호를 우주만리대공에 싣을려 2월의 불명절을 뜻깊게 장식하고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총출력, 총매진해나아가는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활계관을 안겨준 우주정복자들을 축하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김정은 결사옹위》구호의 합성이 주체의 최고성지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우주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바쳐진 평범한 전사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하시고 진짜배기애국가, 영웅중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격에 겨워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

자들이 나라의 우주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감으로써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선구자, 기술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이 안겨준 무비의 담력과 배양으로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신인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 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천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정성의 열기가 온 누리에 뜨겁게 끓어오르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로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치고있는 속에서 우리 재중동포들은 중국 연지에서 민족최대의 명절 평명성절을 성대하게 경축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경사스러운 평명성절을 맞으며 전체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무적평화의 탁월한 영도자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기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펼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장구한 기간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계속완성하는것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조국방위에 가장 공헌한 일심단결의 대외편을 펼쳐놓으시었습니다.

남들같으면 열배정도 더 주저앉았을 엄혹한 난관앞에서도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려고

단호히 선언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빛나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변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위용떨쳐주시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을 우리 민족이 길이 찬양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를 이어 지속되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어 두차례의 핵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시으로써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권리해안의 예지로 수많은 저서들을 발표하시어 인류에게 사회주의의 필승의 보검과 신심을 안겨주시고 사회주의《종말》을 떠드는 세계반동들의 머리 위에 쏘아올린 천주를 내리시였으며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까지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어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세계자주화 위업수행에 불변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포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뜨거운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재중조선동포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듯이 보살펴주시었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영도자 주체적외동포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들이 값높은 삶을 빛내어나갈수 있도록 권유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다정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들의 사소한 아픔까지도 깊이 헤아리시어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었습니다.

진정 자애로운 어버이의 따사로운 그 손길은 이국땅에 살아가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르고 존엄높은 김일성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걸어나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고 자양분이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빛줄기였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자욱자욱 수놓아 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업적은 거세와 인류의 실정속에 영원히 새겨져있으며 강성번영할 선군조선과 더불어 현주만대까지 길이 빛날것입니다.

민족최대의 명절 평명성절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는 이 시각 저희들은 동서고금 그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수령복, 위인복을 대를 이어 누리가는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특권과 행복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해외동포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을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가다듬고있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하늘아래에 사는 재중동포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책임감을 항상 명심하고 걸림속중학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과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항일혁명전구들을 정성다해 모시고 관리하며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벌여 주체의 혁명전풍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동포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

라도 찾아가 우리 공민 한사람이라도 조직에 묶어세워 그 희망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재중조선인총연합회를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고 받드는 주체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해외의 성세, 방패가 되며 원수님의 위인상을 널리 선전하는 기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시엄과 실천에 구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들기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선년사에서 제시하신 투쟁구호 《내외반동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온 거세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간절한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전체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재중조선인 애국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주제105(2016)년 2월 16일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에리오피아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에리오피아준비위원회가 1월 28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장 매드하네 명베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기대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누 케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는 평명성절을 맞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 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경사로 된다.

《광명성-4》호발사성공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 펼치시는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스런 결실이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화학의 파시프 된다.

우리는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적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어느 나라도 이에 대하여 간섭할수 없다.

영웅적조선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축하하여 단마르크와 기념선단제인사들이 8일과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평화적목적의 위성발사에서 커다란 과학기술적진보를 이룩한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의 위성발사는 나라의 자립적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매우 절실한것이다.

그러나 서방나라들은 조선의 위성발사를 두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있다.

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라고 떠들어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주장은 외무된다.

우리는 아직까지 조선과 전쟁상태를 유지하고있는 미국보다 조선의 주장을 더 믿는다.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는것은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따라서 조선의 위성발사가 비난받을 리유란 있을수 없다.

조선이 발사한 위성은 철저히 평화적